

# 광주공장 전량 생산...기아 전기차 '쏘울EV' 출시

보조금·면세 혜택...1850만~2450만원 구입 가능

1회 충전 148km까지 주행...시판 전기차중 최고 성능

기아자동차가 전기차 '쏘울EV'를 10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량생산되는 쏘울EV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해 각종 첨단기술을 투입한 신차인 만큼, 올해 판매목표량인 500대를 넘어설 지 주목받고 있다.

10일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EV의 가격을 4250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환경부 보조금(최대 900만원 지원)을 받으면 1850만~2450만원에 실제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전기차 구입 고객은 취득세(140만원 한도)와 공채(도시철도 채권 매입시 200만원 한도, 지역개발

채권 매입시 150만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고, 완속충전기 설치 혜택도 있어 전기차 구입의 최적기이기도 하다. 쏘울EV는 가격 경쟁력과 동력성능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기아차 디자인 아이콘 '올 뉴 쏘울'을 기반으로 개발해 81.4kW의 모터와 27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고속 전기차로,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움직이며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 1회 충전을 통해 14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시 24~33분, 완속 충전시 4시간20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정식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



하는 데 11.2초 이내가 걸리며 최고속도는 145km/h, 최대출력은 81.4kW, 최대 토크는 285Nm의 우수한 동력 성능을 갖췄다. 실제 쏘울 EV는 뛰어난 성능 덕분에 지난 상반기 제우도 전기차 공모에서 전체 신청차 1654명 중 596명(36%)이 선택해 공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쏘울 EV는 전기차용 히트펌프 시스템과 개별 공조, 내외기 혼입제어, 차세대 회생 제동 시스템 등 친환경차에 어울리는 다양한 에너지 활용 기술을 투입했다. 실내 인테리어도 밝은 빛이 감도는 흰색 센터페시아와 OLED와 LCD가 적용된 EV 전용 클러스터 등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했으며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섬유 등 친환경 소재를 대거 적용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도 10년·16만km로 설정해 국내 출시 전기차 중 보증기간도 가장 길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중 가장 뛰어난 성능과 주행 거리를 갖춘 쏘울 EV는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며 "독특한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쏘울 EV에 많은 사람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1900여개의 급속·완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기아차는 상반기 내에 영업점과 A/S 센터에 급속29개, 완속32개 등 총 61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 올 첫 2000선 돌파

10일 코스피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00선을 넘어선 채 마감했다. 중국발 약재에도 외국인 '사자'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66포인트(0.48%) 오른 2008.6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이날 2007.71로 출발하며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다 오전 11시께 중국 무역지표가 발표되면서 2000선을 반납했다. 이후 오후 3시께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다 오전 11시께 중국 무역지표가 발표되면서 2000선을 반납했다. 이후 오후 3시께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다 오전 11시께 중국 무역지표가 발표되면서 2000선을 반납했다.

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8%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 이동 추세가 계속되며 지수를 떠받쳤다.

여기에 원화 강세 현상으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도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2원(0.12%) 내린 1040.2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한때 103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 내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소지원 비중 16%로 높인다

지원액 3조원 달할 듯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액 중 중소기업 지원액이 대폭 늘어나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R&D 투자액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올해 14.4%에서 16%대 중반으로 높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연계를 통한 경제부흥 견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개선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미래부는 내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

고자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R&D 성과의 활용 개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18% 달성 시기를 애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4%인 비중은 내년 16%대 중반으로 높아진다. 올해 총 R&D 예산 17조 7000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액은 2조5000억원대이지만 내년 총 예산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지원액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올 성장률 4.0%로 상향

한은, 물가상승률 2.1%로 낮춰...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체계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4.0%로 올려잡았다. 또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여건 변화를 감안해 경제성장률이 올해 4.0%, 내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는 전망치를 바꾼 것이 국민계정 체계와 기준년 개편에 따른 것이라며 "성장세는 1월에 봤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국민계정 체계를 새 국채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기준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꿨다.

이날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한은은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서 11개월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시점에서 설부른 금리 인상은 회복세에 접어들어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불확실

성 등 부담 요인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도 한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진 금융연구원 부실장은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속도에 보조를 맞춰 10월 전후로 한차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1%로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한은은 2014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기존의 2.9%에서 지난해 10월 2.5%로, 올해 1월 다시 2.3%로 하향조정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 전망과 관련해 "농산물 가격 약세와 등록금 동결 요인으로 예상보다 1분기 실적치가 낮게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경기회복 속도와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속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간 4% 성장이라면 통상 3%대 후반으로 이야기하는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속도"라며 "단지 성장세가 낮다 보니 소위 적정 성장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2013 오토GP에서 금호타이어의 타이어를 장착한 레이싱머신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 금호타이어 F1 진출 가속

오토GP에 F1 규격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가 세계 정상급 포뮬러 대회인 오토GP 시리즈에 포뮬러(F1)과 동일한 규격의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궁극적인 목표인 F1 진출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공식타이어 업체로 활약중인 오토GP 시리즈(Auto GP, Auto Grand Prix Wor-

ld Series)가 오는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막한다. 이번 오토GP는 F1과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해 대회를 치르며 금호타이어는 F1 규격 타이어 공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용한 기술 데이터와 경기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토GP는 이탈리아 포뮬러 3000 시리즈가 2010년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탄생한 시리즈로 F1 바로 단계의 포뮬러 대회다. 2012년부터 금호타이어가 타이어를 단독 공급하고 있으며 매 경기당 15~20대의 차량이 참가해 승부를 겨룬다. 레이싱 머신에는 550마력(HP)의 엔진이 탑재되며 대회마다 두 종류의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등 F1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임동률기자 exian@

▲ 코스피지수 2008.61 (+9.66)	▲ 코스닥지수 555.10 (+2.88)	▲ 금리(국고채 3년) 2.86%(0.00)	▲ 원·달러 환율 1040.20원 (-1.20)
----------------------------	---------------------------	-----------------------------	-------------------------------

# 익산국토청 호남지역 국도 터널 대청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봄을 맞아 5월까지 호남지역 국도 터널 대청소에 나선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23일까지 지역 19개소의 터널 청소를 실시하며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25일까지 22개소를,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다음달 23일까지 40개소를 각각 청소를 계획한다.

터널 내벽 청소는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을 이용해 물을 뿌린 뒤 벽을

뒹고, 다시 물을 뿌리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청소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낮시간대에 실시되며 청소가 진행되는 시간대에는 차량 통제도 함께 진행된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청소인 만큼 운전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유생존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존**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주스)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 아이엘리시아)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 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NAVER <b>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b>

(주)금용건설 InstaFloor  
SGS UKAS SGS UKAS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